



(왼쪽부터) 지난 24일 현대자동차 '쏘나타 디자이너와의 대화'에 참석한 이종근연구원, 신승현 연구원, 이지현 연구원. /정연우 기자

“아빠차를 오빠차로 만들고 싶었어요”

현대차 '쏘나타 디자이너와의 대화'

‘자동차의 기능과 직결되는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닌 공학이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쏘나타 디자이너와의 대화’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열었다. 8세대 DN8 쏘나타의 외관과 내부, 색상을 꾸민 디자이너 3인방을 만났다.

쏘나타의 외관을 장식한 현대외장디자인 1팀 이지현 책임연구원은 “신형 쏘나타는 비율, 구조, 스타일링, 기술 4가지를 적용한 작품”이라며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감각적인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가 타던 차량이 쏘나타였다”며 “쏘나타를 ‘오빠 차’로 디자인해보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4년 3월 7세대 모델 출시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며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날렵한 느낌의 중형 세단 이미지를 완성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쏘나타는 지난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르 필 루즈(Le Fil Rouge)’를 통해 공개한 차세대 현대차 디자인 철학으로 ▲비율 ▲구조 ▲스타일링(선, 면, 색상, 재질) ▲기술 등 4가지 요소의 조화를 디자인 근간으로 세단 최초로 신형 쏘나타에 적용됐다.

이지현 연구원은 “누구나 갖고 싶은 쏘나타를 만들기 위해 차 후미가 쿠페 스타일로 날렵하게 떨어지는 섹시한 감각으로 디자인 했다”며 “실제 주행성과 연비를 고려하기 위해 공학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전했다.

신형 쏘나타는 빛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라이트 아키텍처’를 통해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외관디자인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및 세심한 정성이 녹아 든 실내 공간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쏘나타의 내부를 담당한 현대디지털디자인팀 신승현 책임연구원은 “쏘나타의 장점은 넓은 실내”라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안락한 느낌을 주고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킥홀더를 3개 배치해 실용성을 살렸으며 새로운 시도를 위해 변속기를 버튼식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색상에서도 이 전 세대에 비해 한층 변화가 있었다. 신형 쏘나타는 ▲화이트 크림 ▲쉬머링 실버 ▲햄튼 그레이 ▲녹턴 그레이 ▲글로잉 옐로우 ▲플레임 레드 ▲옥스포드 블루 ▲미드나잇 블랙 등 8개의 외장컬러와 ▲블랙 윈톤 ▲네이버 투톤 ▲그레이지 투톤 ▲카멜 투톤 등 4개의 내장컬러로 운영된다.

색상을 맡은 현대컬러팀 이종근 책임연구원은 “채도를 높여 쏘나타의 날렵한 감성을 나타내려 했다”며 “고가의 차량과 같은 수준으로 도색했다”고 전했다.

LG U+ “가족 3명 모이면 5G 요금이 반값”

‘U+ 5G 프리미엄 가족 할인’ 출시

LG유플러스는 가족 3명이 결합하면 ‘5G 프리미엄’ 요금제를 반값에 쓸 수 있는 ‘U+ 5G 프리미엄 가족 할인’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해당 기간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2021년 6월 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U+ 5G 프리미엄 가족 할인’은 가정의 달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가계 통신비 절감 프로모션이다. 선택약정할인(25%), ‘LTE 요금 그대로’ 프로모션(월 5250원)에 기존 결합할인도 중복 가능해 최대 14만2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 3명이 ‘5G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할 때 가장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된다. 월 9만5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의 요금제를 3명 모두 반값인 4만7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 전체 할인 총액은 월 14만2500원이다.



‘5G 프리미엄’ 요금제(월 9만5000원)를 5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2인 가족 결합도 있다. 가족 2명이 모든 할인을 적용 받으면 각각 5만9375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할인 총액은 월 7만1250원이 된다.

5G 모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결합도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서비스(3년 약정 기준) 광랜(월 2만2000원)·기가슬림(월 3만3000원)·기가(월 3만8500원)를 ‘U+ 5G 프리미엄 가족 할인’으로 결합할 경우 각각 월 5500원·9900원·1만3200원씩 할인해준다.

/김나인 기자 silkni@

진에어 제재, 이르면 금주 결정

국토부 제시 경영문화 개선 마무리 임직원들 실적악화에 탄원서 제출 항공·여행업계 관계자 서명 참가 “경쟁사 제재, 항공 산업에 악영향”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신규 영업 제재조치 여부가 이르면 금주 결정될 전망이다.

1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제재조치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경영문화 개선 대책을 모두 완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가운데 진에어는 국토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일 진에어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LCC 업체들의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진에어 임직원은 국토부 제재조치로 실적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부에 6000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



진에어 항공기.

한 바 있다. 진에어 임직원과 항공·여행업계 관계자 등이 제재를 풀어 달라며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에어 노동조합도 회사에 대한 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에 참여시켜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논란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싱가포르 등 ‘알짜’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에 참여하지 못했다. 또한 신규 항공기 도입도 늦춰지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반면, 이 기간 제주항공은 9대의 항공기를 도입하며 업계 1위 자리를 굳혔고, 티웨이·에어부산 등 후발주자도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 노선을 취항으로 공격경쟁을 펼치며 진에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그러나 경쟁 업체들도 마냥 웃을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 업체의 성장 둔화는 국내 항공 사업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제재로 인해 경쟁사들이 조금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LCC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수록 항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압도적 존재감... 첨단기능에 연비도 만족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큰 덩치에 비해 연비도 만족스러운 차’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매년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초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의 시승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형 SUV 판매량은 2만 8000여대로 전년 실적의 2배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승세가 오랜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직접 체험해 봤다.

에스컬레이드를 처음 본 주변 사람들은 ‘너무 크다’ ‘유지비 만만치 않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육중한 차체와 22인치 알루미늄 휠은 위압감마저 들게 할 정도다. 실제 크기도 전장 5180mm, 전폭 2045mm, 전고 1900mm로 몸집이 제일 크다.

외형만큼 실내 공간은 여유롭고 고급스러움이 묻어났다. 독립 시트로 구성된 2열과 3열에 성인 4명 탑승해도 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여유로웠다. 3인 두 가족이 이용해도 무리가 없었다. 아쉬운 점은 트렁크 공간이다. 에스컬레이드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430L에 불과하다.

운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콘솔, 도어 상단의 경우 수작업 방식으로 제작한 최상급 가죽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도심형 SUV 이미지를 완성했다. 1~2열 시트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주행모습.

육중한 차체에 시선 강탈 외형만큼 고급스러운 실내 운전·조수석 마사지 기능에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 ↓ 덩치 비해 연료 효율성 높아

는 강한 내구성으로 관리가 수월한 세미 아날린 가죽으로 제작됐다. 운전석과 조수석엔 롤링, 주무르기, 피로회복 모드가 포함된 마사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 장거리 운전시에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운전자를 배려했다.

차량의 주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라북도 군산을 다녀오는 왕복 220km 구간을 주행했다.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커다란 덩치와 2.7톤에 육박하는 중량 때문에 ‘기름 먹는 하마’라는 별명도 있지만 4세대 에스컬레이드는 연료 효율성도 높았다. 정속 주행 시 8개 실린더 중 4개의 실린더를 비활성화하는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장착, 고속 주행 시 자동으로 닫히는 에어로 그릴 셔터와 최적화된

에어로다이내믹을 위해 설계된 에어댐을 통해 연료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여기에 연식 변경을 거치며 10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것도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어 단수가 높을수록 가속이 빠르고 연비는 좋은 장점이 있다. 덕분에 공인 연비 6.8km/L를 훌쩍 뛰어넘는 9.7km/L를 기록했다.

또 8기통 6.2L 자연흡기 엔진을 적용,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2.2kg·m 성능을 내는 엔진은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부드럽게 밀고나간다. 힘이 부족하거나 굼뜨나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 외에도 후방카메라로 뒤를 보여주는 룸미러, 시트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햅틱 시트, 차선 변경 경고 기능, 보스 오디오 등도 눈길을 끌었다. 천장에 달려있는 모니터 외에도 1열 헤드레스트 뒤쪽에 마련된 2개의 모니터로 좌우 탑승객이 각각 원하는 엔터테인먼트를 감상할 수 있어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다. 다만 에스컬레이드의 가격은 1억 3817만원으로 부담스럽긴 하다.

/양성운 기자